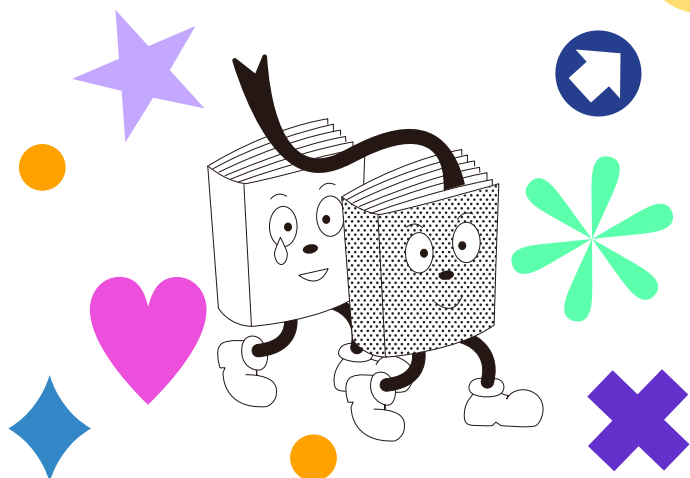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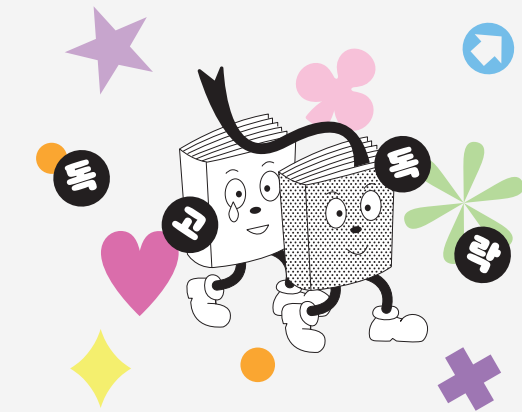


청소년을 위한 짧은 소설 시리즈



독고독락 가이드북





읽고, 보고, 들으며 경험하는 깊이 읽기



누구나 쉽게, 끝까지,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짧은 소설이지만 여운이 남는 이야기. 텍스트 없이도 내러티브가 느껴지는 독특한 일러스트. 작가의 목소리와 책 속 명장면을 미리 만나 보는 낭독 영상까지! '독고독락'은 책과 먼 청소년에게 읽기의 다양한 즐거움을 알려 주는 길잡이입니다. 단순히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행간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림과 영상을 보고 듣는 과정에서 독자가 자연스레 자기만의 해석과 상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차례

『물에 발을 담근 채』

교사 서평

독서 후 질문

참고 자료

『갤럭시 바이크』

교사 서평

독서 후 질문

참고 자료

『일 퍼센트』

교사 서평

독서 후 질문

참고 자료

독고독락 가이드북 집필 김영희

책의 힘, 우정의 힘을 맹신하는 국어 교사.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분과 ‘물꼬방’에서 배우는 이로 살고 있으며, 동료 교사들과 함께하는 콘텐츠 ‘호호책방’을 통해 사계절 청소년문학을 소개하고 있다. 함께 지은 책으로 『챗GPT 국어 수업』, 『웹소설로 국어 수업』 등이 있다.



물에 발을 담근 채

이새벽 글 | 김승아 그림

이새벽 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문학과 어린이문학을 공부했다. 제9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우수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 뒤로 제10회 한낙원과학소설상 우수상, 제16회 창비어린이 신인문학상 청소년소설 부문을 받았다. 창작 동인 '고양이손'의 멤버이다.

김승아 그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현재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만화와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다. 그림을 그린 책으로 『한참을 헤매다가』가 있다. @woaini_1004

김영희 교사가 소개하는 『물에 발을 담근 채』

같은 물에 발을 담근 채

사랑은 앓의 무게를 감당하는 일

이 소설의 사랑은 “더 알고”(14쪽)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주인공 연은 도예부에서 만난 성빈을 무심코 바라보게 되고, 눈이 마주치면 웃어 주는 그가 남들에게도 그러는지, 나는 왜 그것이 궁금한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상대에 대한 마음을 키워 가는 연의 모습은 줄곧 성빈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지는 행위로 그려진다.

사랑의 시작이 그를 알고 싶은 마음이라면, 파국은 ‘앓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온다. 연은 남들은 모르는 성빈의 숨겨진 면을 모두 알고 싶어했으나, 정작 그가 안드로이드라는 결정적인 진실 앞에서 성빈을 부정하고 만다. 사랑이 요구하는 앓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랑은 끝난다. 연은 “누군가를 버린 쪽을 고르자면 그건 나였다.”(8쪽)라는 말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실상 모든 사랑의 속성이 이와 같지 않을까. 『물에 발을 담근 채』는 사랑에 대한 정확한 은유이다.

얼룩이 만들어내는 것

작품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도자기 화소는 자신과 안드로이드의 근본적 차이를 찾으려는 인간들의 시도가 무의미함을 드러낸다. 백자 각각이 지닌 서로 다른 무늬가—제작자의 의도가 아니라—“가마 속 공기의 흐름을 따라 재가 날리며 백자의 표면에 남는 지문과 같은 검은 자국”(9쪽)으로 일어나듯, 모든 존재의 고유성도 우연히 발생한다. 각자가 통과한 경험을 통해 빚어지는 것이다.

인간과 유사한 ‘평균적인’ 가정과 학교에서 성장한 안드로이드 성빈은 경험을 통해—흔히 인간만이 갖는다고 믿어지는—감정들을 학습한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연산밖에 없”(31쪽)다고 말하는 연에게 성빈은 인간의 감정이 “경험의 총합인 무의식 레벨에서 신경전달물질이 전달된 결과에 지

나지 않”(32쪽)을 뿐이라고 응수한다.

아울러 성빈의 존재를 학교에 폭로한 인물 ‘체육복’의 정체가 끝내 드러나지 않는 설정이 돋보인다. 이 서사에서 무게 두어야 할 바는 ‘누가 폭로했는가’가 아니라 ‘인물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하였는가’이기 때문이다. 연이 성빈을 배신한 이유는 과거 따돌림을 당한 경험 때문이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남들처럼 하기’라는 생존 기술은 연의 고유성이다. 성빈을 배척하는 학생들의 반응, 성빈을 보호하지 않는 교사의 행동 모두 그들이 지닌 고유성이 발현된 결과이다.

고유성이니 존중합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경험 이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는 말이다. 타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는 거대한 악의라기보다 경험의 틀에 갇힌 상상력의 빈곤에 가깝다. 그렇다면 그들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경험하게 하기’일 테다.

시시하지만 완전한 복수

작중에서 연과 성빈이 함께 물에 담근 것은 손인데, 제목이 『물에 발을 담근 채』인 이유는 무엇일까. 연과 성빈이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제목은, 세계와 접촉하는 면을 공유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손이 주변을 더듬고 판별하는 기관이라면, 발은 나라는 존재 전체를 세계와 향시 잇는 그야말로 접촉부이기 때문이다. 물속에 함께 발을 담근 상태에서 연의 발은 여전히 물에 붙어 쪼그라들 것이고 성빈의 발은 변함없이 매끄러울 테지만, 둘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매개체를 공유하며 다시 만난다. 여전한 차이를 안고, 그러나 동일한 경험을 하며, 덕분에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방향으로 각자의 고유성을 확장할 수 있다.

성빈의 복수 계획이 아주 흥미롭다. 학교에 남은 이들에게 불신의 파문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전 부라 시시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빈이 일으키려는 불안—정체를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성빈 자신의 초기 설정이자 그가 느낀 최초의 감정이다. 따라서 성빈에게 복수란 자신의 경험을 인간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일이 된다. 경험의 바깥을 상상할 수 없는 이들에게, 나와 같은 경험을 쥐여 주는 이 복수는 시시하지만 완전하다. 복수인 동시에 그 결과가 ‘우리가 한층 닮아짐’이라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맺어지기 때문이다. 연은 한때 성빈을 저버렸으나 이제 그 복수의 연루자가 되어, 성빈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물에 발을 담근 채』 독서 후 질문

- ① 연의 사랑은 성빈을 “더 알고”(14쪽)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빈의 가장 큰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연은 왜 도망쳤을까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과 그 사람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 ② 선생님은 백자의 무늬가 가마 속 불과 바람이 우연히 남긴 ‘얼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얼룩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성빈과 연은 각각 어떤 얼룩을 지니고 있나요?
- ③ 연은 물에 불은 손가락, 빛에 반응하는 눈동자처럼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차이를 찾으려 합니다. 소설 속에서 두 존재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그 차이를 ‘결정적 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 ④ 성빈의 비밀을 엿듣고 소문을 낸 ‘체육복’이 누구인지 소설은 끝까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작가는 왜 그랬을까요? 만약 정체가 밝혀졌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⑤ 소설에서 인물들이 물에 담그는 것은 ‘손’인데 제목에는 ‘발’이 나타납니다. 손이 하는 일과 발이 하는 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목이 ‘물에 손을 담근 채’였다면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요?
- ⑥ 교실에서 성빈을 모른 척한 연의 행동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혹은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만약 체육복이 소문을 내지 않았다면 연과 성빈은 계속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 ⑦ 성빈을 놀리고 따돌린 아이들은 외떨어진 상황을 겪어 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일 뿐일까요? 잘 몰라서 한 행동이라면 잘못이 아닌 걸까요?
- ⑧ 성빈의 복수는 “학교에 안드로이드가 정말 나 하나뿐일까?”(56쪽)라는 말로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복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⑨ 성빈은 왜 복수 계획을 연에게만 들려주었을까요?
- ⑩ 우리는 직접 겪어 보지 않은 일, 나와 아주 다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설을 읽는 일은 여기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세벽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물에 발을 담근 채』
국어 교사가 읽고 추천하는 『물에 발을 담근 채』



갤럭시 바이크

이경주 글 | 화원 그림

이경주 글

사람과 음식, 그리고 이야기를 좋아한다. 지은 책으로 청소년소설 『우리를 만나다』, 그림책 『밤동』이 있다.

화원 그림

현실 속 이야기에 상상을 담아 몽환적인 세계를 그려 내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희 교사가 소개하는『갤럭시 바이크』

무채색 일상에 찾아온 변수

안정의 추구

타인의 도움 없이 생계를 온전히 꾸려야 하는 무한의 하루는 일정하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마트의 마감 할인 코너에 들러 식재료를 산다. 귀가한 뒤에는 학교 과제를 한다. 일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사건’은 무한에게 체력과 정신력을 갉아먹는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 외계인 휴 빌과 처음 만난 밤에도 무한은 놀라워하기는커녕 잠을 자러 간다.

힘들게 지켜 온 항상성이 무너질까 염려하는 무한의 모습을 통해 ‘안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안정적인 마음’, ‘안정적인 체력’과 같이 안정적이라는 표현은 주로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정해진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무한이 강제로 추구해야만 하는 ‘안정’은 그동안 우리가 이해해 온 단어의 의미와 다소 다르게 느껴진다. 무한의 행동과 생각, 마음을 특정한 테두리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당분간 함께 살게 된 휴 빌이 건넨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을 때에도 무한은 기뻐하지 못한다. 오히려 행운을 바라게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필요한 비용만을 떼어 받는다.

“제가 그 돈을 받으면 기대가 생겨요.”

그가 모르겠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행운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겨요. 쉽게 말해서 아저씨가 자주 말하는 오류라는 게 생겨요.”(55쪽)

변수의 통제

휴 빌의 고향 행성인 자쉬드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되며, 휴 빌을 비롯한 자쉬드인 모두가 비행선을 타고 우주를 떠도는 처지가 된다. 자쉬드 행성이 황폐해진 이유는 변수를 통제하며 극단의 효율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컨트롤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쉬드는 효율성의 극단을 추구했어.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하는 상태로 조정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어. 그래서 변수를 최대한 제거하는 게 필요했지. 문제는 생명체에게 일어나는 변수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었어. 메인 컨트롤 시스템은 변수 통제가 안 되는 생명체를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존재로 인식했고, 생명체를 가차 없이 소거하기 시작했어.”(6869쪽)

효율성을 높이려 변수들을 소거한 자쉬드인의 과거는, 일상의 안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으며 지내는 무한의 현재와 상당히 닮아 있다. 휴 빌이 무한을 돌보는 이유는 세상에 홀로 남은 무한이 안타까워서이기도 하지만, 두꺼운 벽을 세우고 일상을 지키는 무한에게서 자쉬드인의 과오를 발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정을 위해 모든 변수를 통제한 뒤에 무한이 살게 될 시간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휴 빌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다. 휴 빌이 떠난 자쉬드 행성과 무한의 공통점을 비교해 보면 이 소설이 독자에게 전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변수’의 가치이다.

“그만 좀 해요! 아저씨가 뭘데 잔소리예요?”

“돈 버는 일이 필수이듯이 인간 사이의 네트워크도 중요해. 지금 네 나이는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좋은 시기야. 경험치가 많은 자의 조언을 참고하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61쪽)

해피엔드

할아버지의 유품인 GS-27의 부품에서 촉매를 찾은 덕에 비행선을 수리한 휴 빌은 무한을 떠나 자쉬드 행성으로 향한다. 무한은 다시 홀로 남지만 지금의 무한은 과거와 다르다. 휴 빌과의 만남이

무한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자쉬드 행성의 시스템은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생명체를 모두 없애려 했다. 모두 사라진 줄 알았지만 그 와중에 남아 있었던 몇 줌의 생명체가 행성을 부활시켰다. 휴 빌이 알려 준 ‘안정만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르침도 무한의 마음에 작지만 단단한 뿌리를 내리리라 기대하게 된다. 할아버지가 떠난 뒤 살아남는 일만을 목표로 버텨 온 무한의 무채색 일상은, 앞으로 자쉬드 행성처럼 다채로운 빛깔로 바뀌게 될 것이다.

휴 빌이 오랫동안 지구에 남아 무한과 서로 기대며 지내길 바랐던 독자에게 이 소설의 결말은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작품의 결말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휴 빌이 떠난 후 무한이 자신의 힘으로 깨끗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근거는 ‘체육 대회 사건’이다. 체육 대회를 위해 주문한 단체 티셔츠가 다른 학교로 배송된 상황에서, 무한은 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찾아온다. 무한이 아니었다면 학급의 학생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오토바이는 무한이 생계를 꾸리기 위한 수단이다. 무한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 때문이다. 학교가 끝난 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은 무한과 친구들의 사이를 가로막는다. 무한에게는 시간적인 여유도, 금전적인 여유도 없다. 하지만 체육 대회 사건으로 무한이 가진 특성이 오히려 학급의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는 설정은 ‘무한의 현실적인 조건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의 일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마음이 가벼웠다.

무한과 휴 빌이 알콩달콩 즐겁게 사는 결말은 사실 해피엔드가 아닐 수 있다. 휴 빌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영원히 품고 살 것이고, 무한은 휴 빌에 의지하며 지낼 테니까. 독자가 바라는 결말과 등장인물이 진정 행복해지는 결말은 언제나 일치하진 않는다. 휴 빌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자쉬드 행성으로 돌아가고, 무한은 전과 달라진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결말이 각자의 단단한 행복을 나타내는 것 같아, 이 결말이 좋았다. 심지어 휴 빌과 무한은 우주적인 규모의 연결을 통해 서로를 기억한다. 이보다 더 거대한 해피엔드가 있을까?

어제와 같은 오늘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어제와 다른 오늘이길 바란다.

(...)

도로를 나 혼자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빛 하나가 나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우주가 날 비추고 있었다. (92-93쪽)

『갤럭시 바이크』 독서 후 질문

- ❶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은 무한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 ❷ 무한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본 경험을 친구와 공유해 봅시다.
- ❸ 무한이 지키려 하는 '안정적인 일상'은 무한에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고,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❹ 생명체를 없애는 것은 왜 변수를 줄이는 일이 될까요?
- ❺ 극단의 효율을 추구하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의 사례를 현대 사회에서 찾아봅시다.
- ❻ 휴 빌이 무한에게 큰 관심과 정성을 쏟은 이유를 자수드 행성에서 일어난 일과 연결 지어 짚어 설명해 봅시다.
- ❼ 앞으로 무한의 학교생활은 어떠할까요? 그림으로 표현해 본 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봅시다. 이때 생각의 근거를 반드시 소설에서 찾아 주세요.
- ❽ 체육 대회 이야기가 소설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❾ 여러분이 바라는 소설의 결말은 어떠했나요? 짝과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 ❿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에게 응원이 되는 사람이나 존재를 떠올려 봅시다. 마지막 장면과 연결 지어 짝과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이경주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갤럭시 바이크』



국어 교사가 읽고 추천하는
『갤럭시 바이크』



일 퍼센트

김태호 글 | 최지수 그림

김태호 글

동화 『기다려』로 창비어린이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동화 『네모 돼지』, 『제후의 선택』, 『파리 신부』, 『복희탕의 비밀』, 『다이너마이트』(공저) 청소년소설 『별을 지키는 아이들』 등을 썼다.

최지수 그림

여행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린다. 낮설어 보이는 장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장면을 수집하고 있다. 그동안 『서른 살에 스페인』, 『갯강구 씨, 오늘은 어디 가요?』를 쓰고 그렸다.

김영희 교사가 소개하는 『일 퍼센트』

종말보다 오래된 카운트다운

허상의 목록

거대한 운석과의 충돌로 지구 종말이 예정되자, 인간이 확실하다고 믿어 온 것들이 실상 허상이었음이 드러난다. 지구 문명은 지름 10킬로미터가 넘는 운석 앞에서 “돌덩이 하나 막아 낼 능력이 되질 않았”(16쪽)으며, 방사능으로 물이 오염되자 부자들은 생수를 사기 위해 고급 아파트를 기꺼이 내놓는다. 아빠가 생수를 팔고 벌어들인 돈은 “떨어진 낙엽을 쓸어 모은 것처럼”(49쪽) 방구석에 쌓인다. 피 묻은 얼굴을 생수로 닦아 주려는 엄마를 만류하며 아빠가 “금으로 어떻게 세수를 하나”(42쪽)고 말하는 순간, 물에 새롭게 매겨진 값이 드러난다. 값어치란 사물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매기는 것이다.

가치의 전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목격했음에도, 아빠는 물을 팔아 돈과 금덩이를 모은다. ‘그래도 결국엔 돈’이라는 전제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인류가 생존할 확률’ 일 퍼센트를 ‘상위 일 퍼센트’라는 계층 이동의 꿈으로 옮겨 놓는 아빠의 계산에는, 살아남기만 하면 세계가 화폐 중심의 기존 문법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아빠에게 재난은 환전의 기회다. 그 믿음의 끝에 지후 가족이 도달한 곳은 49층 새집이다. 도시의 기반 시설이 망가진 상황에서도 자가발전으로 불을 밝히는 ‘일 퍼센트의 아파트’, 그러나 그 집의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아빠는 물을 팔아, 물이 나오지 않는 집을 산 것이다. 그가 생수를 팔아 얻으려 한 행복이 실상 빈껍데기였음이 여기서 드러난다.

호화로운 집에서 부모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생수를 팔러 나간다. 그사이 운석 충돌이 예고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5분마다 남은 시간을 세어 주던 카운트다운마저 확실한 것이 아니었던 셈이다. 부모를 찾으러 엘리베이터를 탄 지후는 문이 열리는 순간 유리창 너머 부모를 향해 손을 뻗는다. “나는 손을 뻗었…….”(72쪽)라는 마지막 문장은 맺어지지 못한 채 하

얀빛과 함께 증발한다. 악착같이 모은 현금도, 49층 아파트도 충돌이 내뿜는 빛 앞에서 가치를 잃는다. 『일 퍼센트』가 그려 내는 허상의 목록은 그렇게 완성된다.

운석 때문이 아니다

재난 이전부터 부모는 바빴고, 지후는 이미 “매일 혼자 밥 먹”(24쪽)어야만 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은 게 언제”(21쪽)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분주히 살아오다 지구 종말을 앞두고서야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나누어 먹는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우린 김치찌개를 먹는다.”(23쪽)며 웃던 아빠는 문득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24쪽)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 가정의 행복이 고작 찬밥과 찌개 한 냄비로 가능했다는 뒤늦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생수가 새로운 가치를 얻자 아빠는 분주히 생수를 팔아 돈을 벌고, 고급 아파트로 이주한 뒤에도 또다시 생수를 팔기 위해 배낭을 둘러멘다. 마지막 외출 일에도 아빠는 지후에게 “조금만…… 아니 오늘까지만 참자.”(67쪽)라고 말한다. 『일 퍼센트』는 종말이 예고된 후 지후 가정의 일상에 주목하지만, 실상 이 가족은 재난 전에도 행복을 유예하며 지내 온 것이다.

지구 종말이라는 설정은 인물들이 항상 기억해 온 ‘나중’이라는 시간을 삭제한다. 작가는 지구와 운석의 충돌을 3주 앞둔 시점에 지후 가족을 세워 두고, ‘나중이 사라진 세계’에서조차 반복되는 행복의 유예를 보여 준다. 결국 이 소설이 그리는 것은 재난이 만든 인류의 타락이 아니라, 재난으로도 꺾이지 않는 유예의 관성이다. 돈이 휴지가 되는 것을 보고도 돈을 모으는 사람과, 나중이 사라진 것을 알고도 오늘을 미루는 사람은, 기실 다르지 않다.

“조금만 참자.”는 소설 속 대사이기 이전에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혹은 소중한 이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때 함께 쓰이는 ‘너를 위해서’라는 조건은 오래된 유예의 알리바이다. 지후의 아빠를 향해 비판을 하고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는, 아빠의 곁에 그와 나란히 선 독자 자신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일 퍼센트』는 재난 소설이 아니라 거울이 된다.

『일 퍼센트』 독서 후 질문

- ❶ 소설에서 현금, 아파트, 금은 가치가 없어지고 생수가 가장 귀해집니다. 쓸모가 그대로인데 가격이 달라졌다면, 가격을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이 소설에서 재난 전후로 가격이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지도 짐작해 봅시다.
- ❷ 아빠의 마음이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부자가 되려는 욕심'으로 바뀐 정확한 장면을 소설에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두 마음은 처음부터 구분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 ❸ 만약 운석이 예고된 날짜에 정확히 떨어졌다면, 소설의 주제가 달라졌을까요? 작가가 카운트다운을 틀리게 만든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 ❹ 만약 운석이 정말로 지구를 비켜 갔다면, 지후네는 상위 일 퍼센트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빠의 선택은 옳았던 것이 될까요? 선택의 옳고 그름은 결과로 판단해야 할까요, 그 순간의 동기로 판단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으로 아빠를 다시 평가해 봅시다.
- ❺ 지후는 반지하의 센서를 '나를 늘 반겨 주던 불빛'으로 기억하지만, 49층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는 오히려 "떠나온 지 얼마 안 된 지하방이 그리워졌다." (67쪽)라고 말합니다. 더 밝고 좋은 집에 왔는데 왜 어두운 집이 그리울까요?
- ❻ 지후가 소미에게 전한 선의가 결과적으로는 강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후의 나눔은 잘못이었을까요? 좋은 마음이 나쁜 결과를 불렀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행동을 평가해야 할까요?
- ❼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과, '친구에게는 문을 열어 주는 세계'를 지키는 것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그 선택의 위험도 함께 말해 봅시다.
- ❽ 만약 마지막 문장이 '나는 손을 뺐었다. 하지만 닿지 못했다.'처럼 끝까지 쓰였다면 어땠을까요? 작가가 "나는 손을 뺐었……."에서 문장을 끝맺지 않은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문장이 완성된 결말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 ❾ '미래를 위해 조금만 참자.'가 좋은 결과를 낳는 상황과 아닌 상황을 나누는 기준을 세워 봅시다. 예를 들자면, '참는 것에 대한 보상을 얻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등으로요, 그리고 그 이유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세요.



김태호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일 퍼센트』



국어 교사가 읽고 추천하는
『일 퍼센트』

독고독락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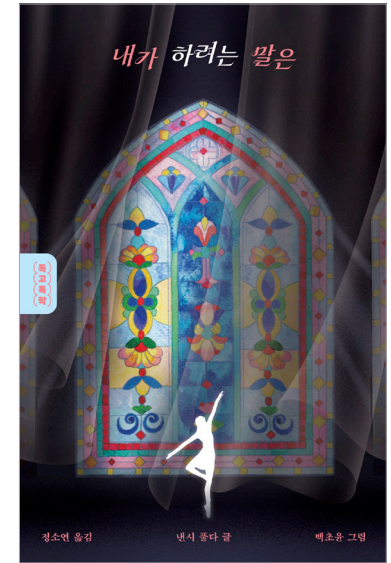
물에 발을 담근 채

이세벽 글 | 김승아 그림

#비인간 #차별 #성장

축축하고 질척거리는 물속에서
성장의 첫걸음을 떼다

나는 친구에게 따돌림당한 뒤로 오랫동안 남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예부에서 만난 성빈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친절했지요. 성빈을 좋아하게 된 나는 조심스레 마음을 고백하지만 성빈에게서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과연 인간과 비인간을 나누는 경계가 이들의 마음도 갈라놓게 될까요?



내가 하려는 말은

넌시 풀다 글 | 정소연 옮김 | 백초윤 그림

#정체성 #다양성 #장애

나를 바꾸는 대신
'정상'으로 살 수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마주한 주인공들을 다룬 두 편의 짧은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움직임」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청소년 한나에게는 보통의 아이가 되라는 기대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였던 「다시, 기억」의 엘리엇에게는 그를 '자신들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되돌리려는 가족들의 사랑이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정상'이 되라는 주변의 기대와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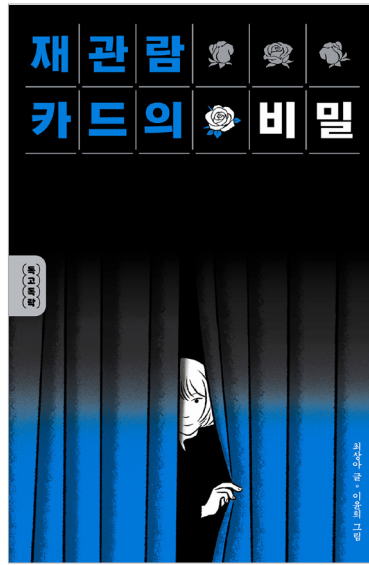
갤럭시 바이크

이경주 글 | 회원 그림

#자립청소년 #응원 #위로

어제가 가장 소중한 무한 앞에 펼쳐진
어제와 다른 오늘

스스로 생활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자립 청소년 무한. 늘 혼자였던 무한의 집에 어느 날 외계인 휴 빌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생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을 바라는 무한은 외계인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던 생활을 들여다봐 주는 휴 빌이 어쩐지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 같기도 합니다. 무한은 행운이 사라질까 두려우면서도 점점 어제와 다른 오늘을 기대하게 됩니다.



재관람 카드의 비밀

최상아 글 | 이윤희 그림

#뮤지컬 #덕질 #교류

보고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은 이유는 뭘까?

수많은 덕질의 세계, 그중에서도 시은이는 뮤지컬을 좋아합니다. 아무에게도 말은 못 했지만요. 뮤지컬 덕후라면 누구나 소장하는 '재관람 카드'. 시은이는 본진의 공연을 보고 난 어느 날, 희한한 재관람 카드를 마주하게 됩니다. 덩달아 남들에겐 보이지 않는 귀신 주희도 찾아오지요. 그런데 웬걸, 자신도 뮤덕이라는 귀신 썰나락 까먹는 소리를 합니다. 심상치 않은 뮤덕 귀신과의 동침! 주희가 건넨 재관람 카드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코너를 달리는 방법

이필원 글 | 토티 그림

#좋아하는_마음 #진로 #육상

잘하고 싶어서 괴로워진 마음 앞에
나타난 순수한 기쁨

청소년의 찬란한 마음에 귀 기울이는 이필원 작가가 또 한 번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 그렸습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육상 유망주 우남우에게 새로운 훈련 파트너가 찾아옵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빠른 속도를 유지하는 선우진. 그런데 선우진이 나타나자 아이들이 '허깨비'라며 수군거립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 일정 기간 머물다 사라지는 그들, '허깨비'. 우남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선우진에게 자꾸만 마음이 갑니다.



꿈에서 만나

조우리 글 | 근하 그림

#첫사랑 #전염병 #사랑도_전염이_된다면

전염병 시국을 뒤흔든
뜻밖의 핑크빛 기류

십 대 청소년들만 걸리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증상은 잠에 빠지는 것뿐! 이 병은 전염 경로도 특이한데요. 감염된 사람의 꿈에 나타나는 사람이 곧바로 감염된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전염병 시국 속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꿈을 꾸 주길 바라는 핑크빛 기류가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나의 꿈을 꾸 줄까요? 우리 제발, 꿈에서 만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필원 글 | 예란 그림

#사랑 #기적 #평행선

나란한 두 개의 평행선에
접점이 생기는 순간, 기적

같은 반이지만 맞닿을 일 없었던 부반장과 나. 나는 우연히 그 애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마법에 걸린 듯 사랑을 느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까?’ 풋풋한 첫사랑의 설렘, 평행선과 같은 두 사람의 마음이 맞닿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그린 소설입니다.



너의 유니버스

조규미 글 | 이로우 그림

#시간여행 #세계관 #미래

어디로든 달아나고 싶은
나를 숨겨 주었던, 너의 세계

공부 스트레스에 늘 숨이 막히는 지훈에게 같은 반 친구 람은 유일한 도피처입니다. 쇼핑몰에 화재가 일어난다느니, 이제 막 개봉한 영화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리즈가 된다는니..., 람은 자신이 시간 여행자라 주장하며 늘 황당한 소리를 하지만, 지훈은 그 말을 조금도 믿지 않으면서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애의 세계관이니까요. 그런데 람이 떠나 버린 뒤, 그 애의 말들이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일 퍼센트

김태호 글 | 최지수 그림

#윤석충돌 #지구멸망 #인류생존

예고된 인류의 마지막 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치직 치지직— 21일 4시간 15분 남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지구 최후의 날을 카운트다운하는 건조한 기계음만 흘러나옵니다. 거리는 소란스럽습니다. 지금을 살기 위해 약탈과 방화를 하는 사람들, 대피소에서 가만히 운명을 기다리는 사람들, 단 일 퍼센트의 생존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앞날을 대비하는 사람들. 이 소설은 인류의 마지막 날을 알게 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